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찬국일로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빛의 자녀들이여, 죄로 어둔 밤 밝게 비춰라!

다음 주일부터 2009년 선교훈련(CMTC) 시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가 악하고 어둡다고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 세대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으며 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대를 걱정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어둠을 어둡다고 비판하고 불평하며 걱정만 하십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마 5:14) 보혈의 은총을 입은 빛의 자녀라면 오히려 "밝아야 할 빛이 왜 밝지 않은지?"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세상의 잘못된 것에만 두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는 복음의 도구가 되십시오. 지금 어두운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가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행 8:1)

오늘 찬양예배 후에 2009년 국내전도와 단기선교 설명회가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부터 2009년 선교훈련(CMTC)이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이전 에 어떻게 했는가의 지식과 경험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 16:15)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지금 즉시 단기선교에 지원하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은 서둘러서 선교훈련(CMTC)을 받으시고,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팀 장흥렬(2008년 12월, 2009년 1·3·5 월)을 받으십시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지혜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제7차 성찬식 (오늘 1~5부예배 시)

오늘 주일 1~5부예배 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유두도(행 20:9)처럼 말씀과 성찬을 가깝게 여기지 마시고, 진지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고전 11:27) 예수님의 쟁기신 삶과 흘리신 피는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은총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오늘부터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은 진급된 부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문/교육국)

말씀과 삶(금요안양집회)

- | | | |
|-----------------------------------|------------------|--------------------|
| 1.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 | 6. 죄 용서함과 생명을 주신 | 11. 정죄의 직분 |
| 2. 비전 고지 할망 | 7. 아벨함과 귀한 소식 | 12. 종의 땅에 벗어나 |
| 3. 실질적인 체현 | 8.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 13. 율법 없이 살 수 있을까? |
| 4. 오류에 대한 책망 | 9. 내 모습 이데로 | 14. 완전의 의존함에 있는 자유 |
| 5.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이다 | 10. 완전한 교제 | 15. 은혜 안에서 자라남 |

16.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고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롬 8:28)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에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를 행하십니다. (고후 1:3~4)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어 드릴 때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다. 이처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신을 바라볼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 (롬 12:2; 뱀후 1:3)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 은총, 자유를 자발적으로 전하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이 변화되기를 소망한다. 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이 아그립마 왕을 향하여 간절하게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 26:29)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인간적인 위로와 동정, 세속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성경을 참고서적으로만 여긴다. 사람이 중심 되고 사회의 조직이 기본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총을 무가치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우상을 만드는 인간 교회의 변질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의 말씀을 삶의 원천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이 없으면 고난 중에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 (살전 5:18) 고난 중에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은 오히려 당연하다. 이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약한 인간이 볼 수 있는 세 힘, 새 것이 들어오는 것이다. 새 것이 옛 것을 내어 쫓으며 빛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롬 13:14)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한 영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야 한다.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일지라도 다 유익하지 않다. (롬 6:15,17)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라."는 권면의 말씀도 많다. (엡 4:22~24) 따라서 그 어떤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초점과 중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15회)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진정한 승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유자가 되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레도 무할레도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갈 5:1,6,13)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노예계 하거나 투기하지 말자.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자. (갈 5:24~26)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빌 2:5~8) 세상에서 누릴 영광만을 꿈꾸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자. (마 20:28)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빌 2:3; 마 16:24~26) 이러한 태도는 자연인에게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직 복음의 진리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참 인간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인간들에 의해 끊임없이 분석되고 비판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히 동일하다. 이 사실을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안다. (골 1:26~28)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파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길 때 복음의 역사는 초대 교회처럼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종교와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진다. (갈 3:1~3) 태양이 진흙을 굳게 만들고 같은 태양이 열음을 녹게하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교만한 자들의 마음을 더욱 굳어지게 하면 겸손한 자들의 마음을 녹여 준다. (마 11:25~26)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내리신다. (약 4:6)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유하신 그리고 자비하심을 항상 발견한다. 예수님은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자. (제 3:20)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체험하는 영원한 삶이 있기를 원한다. 아멘.

PAUL'S SERMON

⁽³⁶⁾*"For David, after he had served the purpose of God in his own generation, fell asleep, and was laid among his fathers and underwent decay; ⁽³⁷⁾but He whom God raised did not undergo decay. ⁽⁴⁰⁾Therefore take heed, so that the thing spoken of in the Prophets may not come upon you: ⁽⁴¹⁾'BEHOLD, YOU SCOFFERS, AND MARVEL, AND PERISH; FOR I AM ACCOMPLISHING A WORK IN YOUR DAYS, A WORK WHICH YOU WILL NEVER BELIEVE, THOUGH SOMEONE SHOULD DESCRIBE IT TO YOU.'*"(Acts 13:36~41)

After being sent out by the Holy Spirit from the church at Antioch in the province of Syria, Paul's first missionary journey took him to several cities along or near the Mediterranean Sea. He and his companions started their ministry work in each city's synagogues and then ministered to the surrounding Gentiles. During his stop in Pisidian Antioch, a small city in the province of Phrygia, Paul delivered a powerful sermon in their synagogue that today's churches need to hear. His sermon began with a brief history concerning the Israelites four-hundred years sojourn in Egypt, plus forty years in the wilderness wanderings and ten years to conquer Canaan.(vv. 17~19) Paul went on to talk about the time of the judges until Samuel, their first king, King Saul, and David's kingship and relation to the Promised Messiah.(vv. 20~23) He also preached about John the Baptist and gave a strong description of Jesus' death and resurrection.(vv. 24~35) His whole sermon is amazing, but today we are going to focus on the significance of his ending words.

Paul's sermon emphasized Jesus Christ as the figure of forgiveness, "For David, after he had served the purpose of God in his own generation, fell asleep, and was laid among his fathers and underwent decay; but He whom God raised did not undergo decay. Therefore let it be known to you, brethren, that through Him forgiveness of sins is proclaimed to you."(vv. 36~38) Right now, churches throughout the world are emphasizing blessings over forgiveness and repentance. Our need for forgiveness is tremendou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Rom. 3:23) Romans 3:10 further states, ".....There is none righteous, not even one." We need forgiveness. All the people who go to church and do not hear sermons concerning forgiveness, but hear sermons that try to make them feel good are missing out on the message of the gospel. Isaiah 64:6 says, "For all of us have become like one who is unclean, and all our righteous deeds are like a filthy garment; and all of us wither like a leaf, and our iniquities, like the wind, take us away." You cannot fix the problem of your sin by yourself. No one can cleanse their sins, for only Jesus has that power. The 21st century church needs to start proclaiming the need for forgiveness, and its 21st century congregation needs to start repenting.

Paul's sermon emphasized the priceless benefits of believing, "and through Him everyone who believes is freed from all things, from which you could not be freed through the Law of Moses."(v. 39) God's power to pardon sinners and restore them to a state of righteousness is known as justification. Justification goes beyond forgiveness. Forgiveness clears our sinful record. Justification declares us righteous, as if we never sinned. Romans 5:1 says, "Therefore,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God's peace is priceless. Romans 5:9 says, "Much more then, having now been justified by His blood, we shall be saved from the wrath of God through Him." Salvation from God's wrath is priceless. Romans 8:1 says,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No

condemnation is priceless. Romans 8:33~34 ask, "Who will bring a charge against God's elect? God is the one who justifies; who is the one who condemns? Christ Jesus is He who died, yes, rather who was raised, who is at the right hand of God, who also intercedes for us." All these priceless benefits are the result of being justified. We cannot attain them through our own efforts or law keeping, "nevertheless knowing that a man is not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but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even we have believed in Christ Jesus, so that we may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and not by the works of the Law; since by the works of the Law no flesh will be justified."(Gal. 2:16) Galatians 3:11 says, "Now that no one is justified by the law before God is evident; for,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 " The benefits of salvation and justification are available to all sinners, "Or do you not know that the unrighteou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Do not be deceived; neither fornicators, nor idolaters, nor adulterers, nor effeminate, nor homosexuals, nor thieves, nor the covetous, nor drunkards, nor revilers, nor swindlers, will inherit the kingdom of God. Such were some of you; but you were washed, but you were sanctified, but you were justifi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in the Spirit of our God."(1Cor. 6:9~11) Churches that center on making you feel good are not good, but churches that hurt your pride and make you feel bad because of Jesus are priceless.

Paul's sermon emphasized a warning, "Therefore take heed, so that the thing spoken of in the Prophets may not come upon you: 'Behold, you scoffers, and marvel, and perish; for I am accomplishing a work in your days, a work which you will never believe, though someone should describe it to you.'"(vv. 40~41) There is danger in doubting. Why do so many people constantly question God and His doings? I'm always hearing people say, "Why did God do this?" and "Why did God allow that?" Please accept God by faith. The offer of salvation by grace is a great privilege. To reject or ignore the message of salvation brings greater condemnation. To receive Christ is to live. To reject Christ is to perish, "He who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but he who does not obey the Son will not see life, but the wrath of God abides on him."(Jn. 3:36) Hear the words of Habakkuk 1:5, "Look among the nations! Observe! Be astonished! Wonder! Because I am doing something in your days—you would not believe if you were told."

What is your response to Paul's sermon? Many of Paul's hearers responded to the good news by wanting to hear more(Acts 13:42~44), and some were filled with jealousy, "and began contradicting the things spoken by Paul, and were blaspheming."(Acts 13:45) Your response today is important and dangerous. If you accept this sermon, real blessing and real thanksgiving will come into your heart. If you do not accept this sermon, then on Thanksgiving Sunday you may enjoy your earthly success, but I tell you that you will not enjoy heavenly success. I hope before Thanksgiving Sunday that you will open your heart to Paul's sermon and repent, so that Jesus Christ can forgive you and justify you before God Almighty. Amen. 卐

바울의 설교

⁽³⁶⁾“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니
⁽³⁷⁾“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 ⁽⁴⁰⁾“그러한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⁴¹⁾“일었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3:36~41)



김성관 목사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뒤 바울은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 지중해 연안과 그 근방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바울과 동료들은 각 도시의 회당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하여 주변의 이방인들을 전도했습니다. 브루기아 지방의 소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무르는 동안 바울은 그곳의 회당에서 강력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즉 400년 동안의 이집트 노예생활과 40년 동안의 광야생활 그리고 10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에 관하여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17~19절) 바울은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까지의 사사 시대와 초대 왕 사울, 다윗의 왕국과 약속된 메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20~23절) 그는 또한 세례 요한에 대해 언급한 다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강한 어조로 설교했습니다. (24~35절) 그의 모든 설교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 중 오늘은 의미심장한 그의 마지막 설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이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6~38절) 현재 전 세계의 교회는 죄 사함과 회개보다는 축복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더 나아가 로마서 3:10은 명료하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에게서는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에베레더라 와서 죄 사함에 관한 설교는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만 듣는 사람들은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사야 64:6은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교회는 죄 사함의 필요성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21세기 성도들은 회개를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바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믿음의 유익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39절) 죄인들을 용서하시와의 의로운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리켜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는 죄 사함을 뛰어넘습니다. 죄 사함은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을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칭의는 마치 원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1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로마서 5:9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에서의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1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 역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33~34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모든 은택들은 의롭다 함을 입은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 2:16) 갈라디아서 3:11은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으리라” 구원과 칭의의 은택들은 모든 죄인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욕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전 6:9~11) 교인들의 기본을 맞추기에만 급급한 교회들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언짢게 하는 바로 그 교회가 참된 주님의 교회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자

바울은 주님의 경고를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었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40~41절) 의심은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에 대해 끊임없이 반문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항상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을까?” 또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은총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주 큰 특권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하시라 무시한다면 더 큰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도를 영접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스도도를 거부한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하박국 1:5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니 내가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설교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더 듣기를 원하며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행 13:42~44)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행 13:45) 지금, 여러분의 반응은 중요하면서도 위험합니다. 만약 주님의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순종한다면 진정한 축복과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수긍하지 않는다면 추수감사주일이 세상적인 성공은 줄길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의 은사는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기 전에 마음을 열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

2008년 제3차 청지기훈련을 통한 은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아, 정말 이것이 말씀의 잔치, 찬양의 잔치로구나

청지기훈련을 30여분 앞둔 시간, 복잡한 마음으로 지하주차장 차 안에 앉아있었다. 최근 때가 심해져 본당에 앉아 청열대면서도 굳이 탁이부가 아닌 본당에 가길 고집하는 둘째가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까닭이었다. 깨워서 지금 본당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좀 더 재우고 탁이부로 가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본당에 앉아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서둘러 아이를 깨웠다. 자연 중 깨워 올라간 터라 여전히 청열대는 아이와 속속 들어와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에 집중하기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최근 되돌아 보게 된 나의 모습이 나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했다. 선교를 준비하고 다녀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고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항복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참 기뻐하고 자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가지 일들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의지, 내 판단이 앞서서 결국 내 입장에서 편한 결정들이 내려졌고 그러면서 '참 나란 인간은 이적이구나, 내 편안함이 우선이고 절대 주님으로 인해 남으로부터 손해를 당하거나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낙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 순간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셨다. "하나님, 전 아시나니? 이런 부족한, 아니 부족하다는 것으로는 너무 모자란 그저 죄인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 다음부터 둘째가 자리를 그리며 혼자 놀기 시작했고 청지기훈련 책자에 고개를 묻고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심령 깊은 곳까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는 준비되지 못한 심령으로 참여 한 나에게도 말씀과 찬양이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는데,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라웠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고 성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위임목사님의 말씀은 내가 알던 말씀이었던 완전한 새로웠고 '아, 정말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다. 위임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저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과의 내용이 온 성도들이 함께 읽어가는 성경 속 말씀을, 분명한 증거의 말씀들로 채워지고, 또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아, 정말 이것이 말씀의 잔치, 찬양의 잔치로구나.' 하는 감격이 차올랐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값없이 구속하여 주셨다는 은혜를 깨닫고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행하려고 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했던 것들이 나를 넘어지게 했던 것임을 발견하였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나'로만 가득차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어서 늘 나로 인해 기뻐하시기 원하시며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순간순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 물론 또 그 만인이 일생전 연속되는 내가 내 속의 나, 즉 죄의 목소리에 종속하고 귀 기울이고 있는 때를 여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 부르고 내가 당신께 집중하길 원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늘 바라보고 그 주님과 대화하고 그 주님의 뜻에 "예."하고 순종할 때, 어느새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있을 나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해본다.

정종현(집사, 23교구)

악독한 죄인이었으나

제3차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나의 마음속에 영과 육이 함께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준비되어 있는지 회개하며 자신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새로운 환경과 도전 속에서 내가 추구한 모든 것들은 어찌된 유예 속한 모든 것들을 추구하였다고 하여도 과인이 아니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현실은 항상 절망과 갈등의 연속이었고 때로는 가슴을 쳐 보기도 하고 한숨을 지어 보기도 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한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제 죽음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그리스도의 군대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 앞에서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20여 년을 믿음 속에 살았은 긴 시간이었으나 사랑하는 남편, 자녀, 그리고 나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마련되었는지 또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마련되었는지 뒤돌아 볼 때에 유예 속한 삶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은총의 청지기 훈련이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단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 예수 그리스도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인이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악독한 죄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시험이 닥칠지라도 유예 속한 삶을 뿌리 채 뽑아버리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원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전 3:16)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기 원한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나와 나의 가정에 결코 흔들리지 않게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리 주신 은총에 감사 드린다.(고후 5:17)

최종현(집사, 5교구)

작지만 귀한 돌

지난 번 청지기훈련에, 나를 위해 예비된 천국이야기(두 세계, 요 18:36)를 듣고 무척이나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은 또 뭉개져버리는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다. 차도 밀릴 텐데, 자리도 없을 텐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서둘러 나가야 할 시간인데도 게으름을 피우다 결국 늦어서 본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늦게 갈릴라홀에 들어가 앉았다. 하지만 가는 내내 '헛지 오늘 말씀도 무척 은혜로운 것 같다.'는 뭉치 모를 기대감을 안고 간 은혜일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가면서 나의 두 볼에는 눈물이 함께 흘러내리고 있었다. 특히 "여러분은 성전 안의 아주 작은 돌임이라도 아주 중요하고 귀한 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돌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씀을 듣자, 주재할 수 없는 감격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실 얼마 전까지 나는 약간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오랜 시간 그토록 원하는 아기를 주시지 않는 것도 원망스러웠다. 괜히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고, 모임에는는 바게 웃으며 때때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다시 축복 처지면서, 몸도 마음도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았다. 때로는 내 삶의 의미, 아니 나 자신의 존재 의미마저 의심스러워 이상한 생각까지 하곤 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편한 편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그저 무기력하고 하기 싫은 마음뿐이었다. 이와 같은 나에게 주님은 청지기훈련 말씀을 준비하셨던 것이다. 그렇다. 분명히 나는 아주 형편없이 작은 돌이었다. 그런데 기뻐한 말씀을 들으니, 나는 그냥 작은 돌이 아니었다. 나는 주께서 세우신 멋진 건축물의, 작지만 아주 귀한 돌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단다.

'아, 왜 진작에 깨닫지 못했을까?' 이렇게 나를 언제나 바라보고 사랑하시며,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 주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도대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한 것인가? 이런 바보 같은....., 이제는 눈물 에 콧물까지 마구 흘러내려 연신 코를 풀어가며 앉았있지만, 어느 때처럼 주변 사람들이 의식되거나 창피하지 않았다.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가슴 벅찬 주변이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다. 빌립의 돌 하나가 더러우면 그 빌립은 온전히 깨끗한 것이 되지 못하고 그 더러움이 결국 보여지고 만다. 이제 '이 빌립과 같이 나도는 깨끗하고 온전한 돌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기쁨으로 채워져야겠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한성해(집사, 청년2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22)

❖ 너무나도 교만했고 이기적이었음을 회개했다

이번 제3차 청지기훈련 때 받은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교회에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찬양 뿐만 아니라 이번 청지기훈련 주제 말씀인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 2:22)는 말씀도 너무 좋았다. 난 말씀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위임목사님의 설교 중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과 나만이 주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자매들과도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이었다. 이 말씀에 그동안 나 자신이 너무나도 교만했고 이기적이었음을 회개했다. 평소에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거나 내가 속한 예배 찬양대와 고등부만을 위해 기도했었는데.....

주님의 자녀를 점점 변화시켜 가신다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서 기뻐했다. 올해 있었던 세 번의 청지기훈련에 모두 참석했는데 그 말씀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아직 주님이 나를 연단하고 시험을 주셔서 나에게 소망을 만들어 주시고 주의 자녀로 만들어가시는 과정을 느꼈다. 앞으로 주가 쓰실 말씀으로 변화 되어서 쓰임 받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충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서로 협력하여 살아가는 자 없이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

정승우(고등부)

❖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며

두려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때, 첫 청지기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와 갑옷이 되신다고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힘을 주셨다. 그런데 육신의 연합으로 인하여 준비하던 단기선교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몸과 마음이 더욱 힘들어졌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나의 육신을 극복도로 회복시켜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 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에 믿어야 내가 너를 군세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로 내게 속삭여 주셨다.

몸은 회복되어 가면서도 눈 앞에 있는 세상적인 걱정들로 낙심하고 있을 즈음, 분주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 선 나에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한 감사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내가 성전의 한 지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첫 모퉁이들로 삼아 건축하신 성전에, 작은 볼보라도 못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놀라운 성전의 한 지체면 내가 경건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과 회개하며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하셨다. 그러한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살아있는 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 한다.

이우미(권할, 7교구)

❖ 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종간교사 기간이라 끊임없이 쏟아지는 과제와 아르바이트를 하여 요즘 참 정신없이 살고 있다. 우리에게 하라한 두 세계 중에 여전히 현실의 세계만 따르기를 좋아하는 나는, 평소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삶을 살다가 교회 갈 때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생각하곤 했다. 이렇게 참 생명이 아닌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삶을 살면서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다.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며 설교를 듣지 않아도 내 자신이 거룩해 진 것만 같았다. 내 자신 스스로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를 만들어 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가치관으로는 절대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작거나 성도수가 많은 큰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하는 돌된 교회를 이루는 나 자신이라고 하셨다. 그렇다.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 없이 살아온 나는 빈 집으로 살았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라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다고 하셨다. 이렇게 죄만 짓고 사는 더러운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놀라운 선물이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인격이 뛰어난 자들, 신학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값 주고 사서서 생령에게 이들이 기록된 우리들로 그리고 나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은혜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집에 거하시니 두렵지 않다. 내가 깨닫게 된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이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뿐이다. 이제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죽은 돌이 아닌 항상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산 돌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집이라 참 기쁘다. 하지만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정말 행복하다.

황현정(대학부)

❖ 착각에서 벗어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3:16)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며 신앙 생활을 했다고 하는 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여지없는 죄의인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의 구주로 고백한 나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매한 인격의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 들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저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그들의 분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비판하며 내 자신의 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고 영원한 불에 던질 수 밖에 없었던 형식적인 종교생활에만 열중이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의 인격자가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곳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하회산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벧전 2:4~5) 자기 자신의 의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쫓아,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불로장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라하셨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을 섬기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박형식(집사, 1교구)

❖ 교회의 참된 터는 예수 그리스도

제3차 청지기훈련에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다리며 금요일 저녁, 우리 가족은 교회로 모였다. 일주일 동안 교육을 나가셨던 아버지는 인연에서, 나는 학교에서, 어머니는 구역식구들을 태우고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에서 감사함과 기쁨을 느꼈다. 교회에 도착하자 예배당은 많은 성도들로 꽉 차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함께하신 성령님을 생각하니 두근거림에 더욱 기대가 되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나 아닌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 나아가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며 동행하며 믿음, 소망, 사랑 위에 그 기초를 세울 때 이 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스쳐갔다. 내 안에 성령님 대신 내가 주인이었던 날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남을 섬기기보다는 나의 상황들에 급급했던 모습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만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런 나의 악한 모습들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달라고 잠잠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또한 말씀 가운데 찬양은 찬양은 그 가사 하나하나에 너무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고, 찬양을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매일 넘쳐지고 쓰러지지만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의 가사처럼 온 세계 모든 교회가 한 주님을 섬기며 다 같은 소망 품고 은혜 받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기 위해 기도한다.

천한(내도, 11교구)

사탄의 방해에도 기도로!

처음 입하는 선교였습니다. 여러 번 다녀오신 팀원들과 언어혼란 및 모든 혼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담대함과 열정으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선교준비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다쳐 20일 동안 고생하고 어머니가 다리 골절로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매달리려 한 주시기를 간구했고, “나를 이겨야 한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지요!”라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담대함으로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하루하루 사역을 할 때마다 나의 어눌했던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발자취를 따라 담대함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향했고 주님께서는 더욱더 힘을 주시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들이 아저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아저 들으리요”(로 10:14) 이 말씀을 기초 삼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각 가정마다 찾으며 나아갔을 때 주님이 미리 열심하신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고 어눌한 입술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접기도까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제 입술에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란 고백이 연거푸 나왔습니다. 오직 말씀을 힘입어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와 복을 얻으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되어 살아 계신 구주를 내 마음속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모든 사탄의 방해는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다짐하며 나아갔던 선교지에서 팀원들과 한 마을 한 뜻이 되어 오직 성령충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할 수 있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영애(임사, 16교구 4지역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선교

집집마다 우상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무의미해 보였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순수했고,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우리는 1인당 4장의 전도지만 가져갔다. 언어소통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직접 읽게 하였다. 그리고 영접기도까지 하였다. 전도지가 귀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더 많이 사용하셨다. 지금까지 몇 번의 선교를 다녀왔지만 이번처럼 내 입술로 복음을 많이 전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신교 정신이 강해서 항상 주변을 의심해왔다.

한 가정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소나기가 쏟아졌다. 우리는 그 속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영접하였다. 그리고 찬양하였다. 이 모든 것이 끝나자 비가 그쳤다. 주님은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소나기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찬양을 부를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찬양을 많이 불렀다. 그들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았다. 자기에 언어로 찬양을 부르는 것을 신기해하며 같이 손뼉을 치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좋아하였다. 우리와 함께 동행한 운전기사는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대하였고,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었다. 기사가 신고할 수도 있다가에 우리는 그를 위해 정말 많이 기도했다. 집으로 돌아가던 날 공항에서 팀장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영접기도까지 하였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전적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고,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였다. 우리의 계획, 열려, 격정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으며, 선교는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하루 속히 선교지에 복음의 문이 열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날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다짐해 본다.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이 죄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정희(권사, 13교구 4지역팀)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0월 30(월)~11월 7(금)	6교구 7지역	안상직
10월 30(월)~11월 7(금)	8교구 2지역	김 근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금요찬양집회 때마다 선교보고를 들으며 ‘정말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피부로 느끼며 저렇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다. 영성심사와 인어심사를 거쳐 4차시가지 가슴을 풀이며 임하면서 너무도 부족한 자신을 발견했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연약한 자를 들어 써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였고, 하나님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알게 하셨다. “그 나라에 계령일이 내려졌는데 가지 않으면 안 될까?”라는 가족들의 열려를 뒤로 한 채 우리 반 기대 반으로 사역지에 도착했다.

첫 사역을 위해 한 집으로 들어갔을 때 너무도 많은 식구가 좁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웃옷을 다 벗고도 옷을 입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 나는 남자들의 모습에 놀랐다. 무엇보다 토속신을 집안에 모셔 놓고도 복음을 전하자 “예수를 믿겠다.”고 대답하는 불쌍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씨를 뿌리던 나지 않을까?” 아무것도 열려 말리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눌하고 부족한 말이지만 “예수를 믿으라!”고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 마음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고 시인했다. 머지않은 장래에 이 땅이 복음화될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할 것이다.

차봉준(임사, 9교구 3지역팀)

십자가의 길

참된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도를 통해서(2)

참된 개혁, 참 신앙의 개혁은 무엇인가? 참 신앙의 개혁은 더 이상 육체의 예법을 따르지 않고, 유월한 길자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히 9:1~10) 자신의 생각과 철학, 학식과 경천을 토대로 멋진 개혁과 추진력,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개혁하려고만 하지 말자. 오히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골 3:8)로 여기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야만 참된 개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전히 육체의 예법을 중시하고, 육체의 예법(히 9:10)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분명 개혁되지 못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의 개혁은 육체의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고 곧, 진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믿고 의지한다. 이런 신자가 바로 거듭난 신자이며 개혁된 신앙인이다. 이 개혁된 신앙인이 개혁된 회회를 이루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개혁된 신자는 육체의 행함을 보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을 바라볼 뿐이다. (엡 2:13)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개혁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정욕과 원심을 못 씌어 버린다. (골 5:24) 오직 십자가에만 집중한다. (고전 2:2)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았음을 믿을 뿐이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히 12:2)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 그 믿음의 순종”이 개혁된 신자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개혁되는 어떠한가? 개혁된 신자인가? 우리 교회는 개혁된 교회인가? 아니면 여전히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며 개혁을 말하지만 전혀 개혁과는 상관없는 채로 있는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모든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한다.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신 그 길만 걸어야 한다. 그 길은 매우 좁은 고난의 길이다.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는 길이다. 이 길만이 유익하고 참된 개혁의 길이다. (마 7:14) 세상의 흐름에 맞추려고 애쓰지 말자.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에만 초점을 맞추자.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자. 아멘.

(편진국)

마가복음 강해 43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해로 왕에 의해서 도시로 확장된 벳새다는 갈릴리 동쪽에 위치했으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촌이었다. 벳새다는 가버나움과 함께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였다. 지리적으로 볼 때 벳새다와 가버나움은 이웃해 있었다. 또한 제자들을 중에도 벳새다와 가버나움을 출신지가 많이 있었다.(요 1:44, 12:21) 예수님은 벳새다에 도착하셨다. 이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고쳐주실 것을 간구했다.(막 8:22)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로 온 이 맹인은 다른 지역에서의 맹인과는 달리 부지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 온 맹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고쳐주셨다.

그런데 약간 특이한 방법으로 고쳐주셨다. 우선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특별히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침을 뱉으시고 기도하신 뒤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어보셨다.(막 8:23) 맹인은 희미하게 사람들과 사물이 보인다고 말했다.(막 8:24) 이때 예수님은 다시 맹인의 눈에 안수하셨고, 맹인은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막 8:25) 사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능히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거친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벳새다의 한 맹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셨다. 이 이유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는가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 속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를 보아야 한다.

예수님은 한 맹인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당시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 "무엇이 보이느냐" 벳새다와 가버나움 사람

벳새다에서 맹인을 고치다(8:22-26)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이적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저주하시며 말씀하셨다. "화 있을진저 고리산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돌로와 시몬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움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마 11:21)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 않은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느끼지도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한다. 보이더라도 아예 외면하고 무시하기 일쑤이다.(마 23:13~29)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 명예와 권력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신 뒤에 그에게 마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다.(막 8:26)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은 오직 복음이었다.(막 1:1)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셨다.(막 1:11) 회개와 복음이 없는 우리들의 진실로 맹인이다!(막 1:14~15)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막 8:18)라고 영적 맹인이 되어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들리는가? 이 사람의 음성에 한번(막 8:32)하지 말자. 자기를 부인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말자. 진심으로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버리보자. 더 이상의 아픔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한 빛으로 나아가자.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새가족양육부 10월 수료자 (1)

세상의 유혹을 끊고 예수님 안에서



♥ 아내의 권유로 중언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에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주님, 그리고 기쁘게 맞아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강성권)

♥ 약한 한 여자인구의 집안이 기독교집안에서 제도 하나님을 알았다는 생각에 온갖 등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지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의 짐을 덜어주셨고, 계계 안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의 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뜻과 그런 예수님을 보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는 중보라고 생각합니다. (오정민)

♥ 먼저 중언교회에 다니고 있는 저의 자녀들과 권유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는 저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신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 종교생활의 본리로 인한 가정의 갈등이 해소되어 가정에 평화로 임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전리가 무엇인가를 몰라 갈등을 했으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믿음에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남화진)

♥ 동생 내외를 따라 1월에 처음 중언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믿어

듣고 어려울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서로 권면해주며 서로를 위해 충고를 매중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의 외지로는 끝이 많은 세상의 구름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저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김성광)

♥ 전에는 열심히 다녔지만 세상 속에 휩쓸려 신앙생활을 중심이 못하다가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고 중언교회에서 열심히 믿음생활을 하고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참 계시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주위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잊게 되었습니다. (최은희)

♥ 중언교회에 중무로에 있을 때 믿음생활을 시작했지만 계속 회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중언교회에 와서 믿음생활을 하고 싶어 등록했습니다. 계시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 못 박혀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확신하게 알게 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유혹을 끊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충만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광남)

(다음 호에 계속)

신임 교역자

복음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알곡(살전 3:2)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순익 목사
충청1부 지도
(1973. 7. 17.)
김요미 사모 외
2남 1녀



안일한 목사
고동부 지도
(1973. 3. 18.)
장선옥 사모 외
2남 1녀



송제호 목사
충청3부 지도
(1973. 12. 30.)
김현정 사모 외
2녀



김성훈 목사
충청2부 지도
(1976. 1. 7.)
임희희 사모 외
1남



서명남 전도사
13교구 부지도
(1967. 9. 23.)



조현열 전도사
고동부 부지도
(1980. 5. 1.)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791	조은혜	14 청년1부	김영희(9)	1799	신승현	23 청년1부	김원환(9)
1792	김원환	9 청년1부	김영희(9)	1800	정원희	8 청년2부	김원환(14)
1793	권환희	16 청년2부	김연수(23)	1801	노혜진	2 대청부	백광희(9)
1794	박광진	16 청년1부	김연수(23)	1802	정승준	14 청년2부	김영희(14)
1795	서명남	1 교역자		1803	김다선	16 청년1부	황윤지(4)
1796	강숙자	2 청년2부	태일희(2)	1804	김원자	23 청년1부	김진미(15)
1797	서창수	11 청년2부	이정애(2)	1805	장승은	12 청년1부	송민원(9)
1798	최지은	21 청년2부		1806	이미준	14 중등3부	이정희(14)

* 충언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로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